

살인 폭염

해남 80대 숨지고 온열환자 급증 연일 열대야...전력수요 고공행진

광주·전남지역에 폭염이 옛새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광주·전남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25일 2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해남에서 8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지는 등 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온이 밤까지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달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살인 폭염=지난 24일 오후 6시 55분께 해남군 삼산면에서 이모(여·83)씨가 집 근처 뒷밭에서 숨졌다. 이씨의 딸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당뇨 등 지병이 있던 이씨가 무더위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남의 최고 기온은 해남 32.9도를 올리고 기온을 기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24분께에는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인근에서 탈진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진 A(75)씨가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광주 6명, 전남 15명 등 모두 21명이다. 증상별로는 열사병 3명, 열탈진 8명, 열실신 5명, 열경련 3명, 열부종 2명 등이다. 전국적으로 모두 146명으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각종 생활·기상보전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이날 광주의 볼레지수는 84(매우 높음)로 최고단계를 기록했다

으며, 자외선지수 9(매우 높음), 피부질환 지수 82(높음) 등 대부분 최고 단계를 기록했다.

또 케이웨더가 제공하는 열사병 지수에서 25일 광주는 30(위험)으로 나타났다. 26일에는 31로 높아지면서 '매우 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 기승 잡 못 드는 밤=25일 광주·전남지역의 낮 기온은 구례 35.7도를 정점으로 화순 35.4도, 나주 35.3도, 함평 34.5도, 영광 34.2도, 곡성 33.8도, 광주 33.7도 등으로 기록됐다.

고온현상이 옛새째 이어지자 새벽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최저기온은 순천 25.4도, 광주·화순 25.3도, 구례 25.1도, 영광·함평·보성 25도 등으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 열대야는 22일과 23일 두 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25일 새벽에도 광주 최저기온이 24.9도로 나타나면서 열대야(기준치 25도 이상) 수준의 더위가 계속됐다.

◇전력수요 연일 고공행진=전력수요량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전국 최대전력수요는 7278만kW를 기록했다. 이 시간 예비전력은 412만kW, 전력 예비율은 5.7%였다. 특히 이날 오후 2시15분께에는 순간 최대전력수요가 7315만kW(전기공급능력 7691만kW)로 예비전력이 '관심' 경보 단계인 377만kW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23일 최대전력수요는 7260만kW(전력 예비율·6.4%)였고, 24일에는 7291만kW(6%)였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23일 468만kW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4일 464만kW, 25일 464만kW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민주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경선 첫 합동연설회가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연설회에 앞서 8명의 후보자가 선전을 다짐하며 일제히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선 경선 광주서 접화 3천 군중 열기

민주당 대선경선 첫 합동연설회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 가운데 대선주자 8명은 25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호남의 선택이 정권교체의 길"이라며 지지 호소했다.

특히 상당수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실정과 총선 패배 등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쏟았다. <관련기사 4·5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8명의 예비후

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경선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예비후보들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근혜 전 위원장을 집중 겨냥하며, 박 전 위원장과 대결할 수 있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조경태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이 선택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추진과 광주를 문화특별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손학규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며 "광주가 선택해 민주당 대표가 됐던 것처럼 또 한 번 광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당내 지지를 1위인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며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준영 예비후보는 "5년 전 민주당이 530만 표라는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진 이유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민이 피곤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분열이 선거 참패를 불러온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손 후보는 "민생 실패·정권창출 실패·총선 참패 등 3패 세력으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문제인 후보를 겨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대북송금 특검도 잘못됐고 참여정부 당시 인사 차별, 민주당의 분당은 잘못됐다"고 광주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뒤 "문재인 후보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인기만 높은 후보, 지역구도만 잘 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강한 후보, 경제를 잘 아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문 후보를 겨냥했다. 김정길 예비후보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몇 개월도 안돼 총선에 당선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분은 결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문재인 예비후보는 "선의를 경쟁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대세론을 강조한 뒤 "경선 이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도 상처를 남기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격했다.

한편,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3000여 명이 몰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 조성된다. 정부는 순천만 갯벌, 보성녹차밭, 하동송진강, 남해, 통영 마리나 등과 박람회장을 묶어 남해안선벨트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수익을 내며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후활용 조직을 설립해 토지, 건물 등의 관리를 맡기고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체계를 검토 중이다. 사후활용에 필요한 예산은 박람회 기금을 활용하고, 민간투자 등을 통해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현 박람회장 근무인력을 박람회 행사기간 중 교육해 폐막 후 한 달 이내에 재개발할 계획이다. 재개발은 조직위가 업무를 담당하며, 입장 요금과 개·폐장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종택기자 golee@kwangju.co.kr

주제관→해양과학관, 한국관→기념관 여수박람회장 남해안선벨트 거점으로

정부 사후활용 방안...폐막후 한달 이내 유료 재개장

또 세계적 해양리조트 건설을 위해 국제관을 해양레저장비, 소풍물 입주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한 뒤 민간기업에 임대한다. 빅오, 멀티미디어쇼, 해상분수쇼, 수상공연 등 특화된 상설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EDG와 스카이다워는 각종 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쓴다. 박람회장에 마련된 부두는 크루즈 기항지로

바우고 요트계류장, 요트 수리·정비센터, 요트 스킨, 해양레저장비 패션관매장 등도 유치한다. 이 밖에도 빅오 해상무대 주변을 수상 산책로가 펼쳐지는 엑스포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노천카페 등도 유치한다. 각각의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씨푸드전문식당과 해수온천, 힐링가든, 수상캠핑 등을 갖춘 해양힐링센터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8월 6일 ~ 8월 20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시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전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